

## 4년의 기다림... 아리랑으로 돌아온 BTS

정규 5집 '아리랑 (ARIRANG)'으로 돌아오는 K팝 대표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 세계 팬들과 함께하는 초대형 컴백쇼를 연다. 2013년 데뷔 이후 방탄소년단은 K팝 가수 최초 미국 앨범 차트 1위, 국내 최다 앨범 판매, 미국 그래미 어워드 노미네이트 등 매 순간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며 K팝 역사를 바꿔왔다. 이번 컴백은 단순한 신보 발표를 넘어 하나의 사회·경제적 이벤트로 평가된다. K팝 시장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이른바 'BTS노믹스'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광화문광장 일대에는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넷플릭스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 팬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볼 예정이다. 방탄소년단은 경복궁 근정문과 흥례문을 지나 광화문광장까지 이어지는 '왕의 길'을 따라 등장하며, 한국적 상징성과 글로벌 스타의 위상을 동시에 드러내는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광화문에서 화려한 복귀의 포문을 연 방탄소년단은 이후 전 세계 35개 도시, 600만 관객과 만난다.

김대은 기자

### BTS Returns to Gwanghwamun

BTS will hold a massive comeback concert at Gwanghwamun Square on March 21, marking their first full-group appearance in three years and nine months. They will walk the "King's Road" from Gyeongbokgung's Geunjeongmun gate through to the square. An estimated 260,000 people are expected in the area, with the show streaming live on Netflix across 190 countries. The comeback, timed to their fifth studio album ARIRANG, is projected to generate around 3 trillion won in economic impact. BTS will follow the Seoul show with an 82-date world tour spanning 35 cities and 6 million fans.



Scan QR code to read the full arti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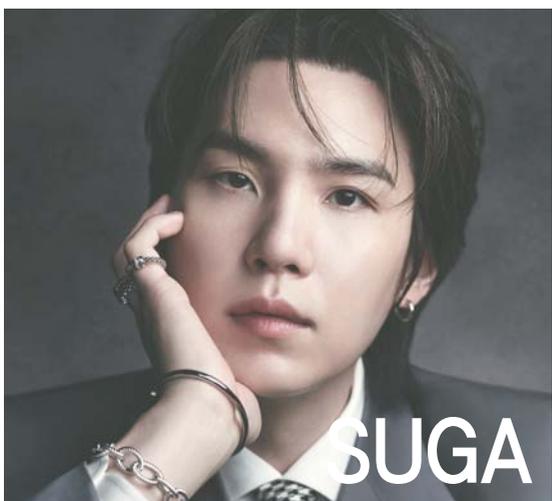
JIN



RM



V



SUGA



J-HOPE



JUNG KOOK



JIMIN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전세계에  
보여줄게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은 총 14곡에 이들의 정체성과 지나온 시간을 응축한 앨범이다. 긴 공백 끝에 다시 선 일곱 멤버는 이번 작품을 통해 자신들이 어디서 출발했고, 무엇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음악으로 풀어냈다. 타이틀곡 ‘스윘(SWIM)’은 거센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끝내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삶에 대한 사랑’으로 풀어냈다. 리더 RM은 앞서 팬들과의 라이브 방송에서 “저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아리랑’에는 삶의 희로애락이 다 같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의 정서를 상징하는 ‘아리랑’에 방탄소년단의 서사를 겹쳐낸 셈이다.

앨범의 상징도 뚜렷하다. 로고는 ‘아리랑’의 초성인 ‘ㅇㄹㅇ’을 붉은색으로 형상화했고, 두 개의 ‘ㄹ’에는 태극기의 건곤감리를 연상시키는 요소를 담았다. 트레일러 영상에는 실제 민요 ‘아리랑’ 멜로디가 흘러나와 화제를 모았고, RM이 전곡 제작에 참여한 가운데 원리퍼블릭의 라이언 테더 등 해외 유명 음악인들도 힘을 보탤다. 수록곡들은 하나의 서사로 이어진다. ‘바디 투 바디’는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에너지를, ‘훔리건’은 세계를 누비며 길을 개척해온 시간을 담았다. ‘에일리언스(Aliens)’ ‘에프와이에이(FYA)’ ‘2.0’은 포부와 열기를 보여준다. 이어 ‘넘버 29(No. 29)’ ‘메리 고 라운드(Merry Go Round)’ ‘노멀(NORMAL)’ 등은 반복되는 인생과 무대 안팎의 감정을 풀어내며 앨범의 깊이를 더한다.

김대은 기자

What ARIRANG Has to Say

ARIRANG is a 14-track album built around the group’s origins and the years it took to reach this point. Lead single “SWIM” expresses the resolve to push through life’s currents at one’s own pace, framed as an act of love for living. RM has said the album is about showing where they started, adding that it carries “all of life’s joys and sorrows.” The logo renders the Korean consonants of 아리랑 (ㅇㄹㅇ) in red, with the two ㄹ characters evoking the trigrams of the Korean flag. A trailer featuring an actual arirang folk melody drew wide attention. RM participated in writing every track, with contributions from international collaborators including OneRepublic’s Ryan Tedder. “Body to Body” channels live-stage energy with the audience; “Hooligans” captures years of global trailblazing; “Aliens,” “FYA,” and “2.0” convey ambition and a new chapter; while “No. 29,” “Merry Go Round,” and “NORMAL” explore the repetitive emotional cycles of fame on and off stage.





# Dear ARMY Let's Swim Together



방탄소년단(BTS) 컴백과 함께 서울 곳곳이 BTS를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든다. 20일부터 시작된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 행사로 서울 주요 지역이 컴백을 축하하는 다양한 체험 장소로 변모한다. 한강 주변이 대표적이다. 여의도 한강공원 멀티 플라자에서는 방탄소년단 음악을 공유하고 감상하는 콘셉트의 라운지형 프로그램 ‘러브 송 라운지’ 행사가 펼쳐진다.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에서는 저녁 7시 30분~8시 30분에 뮤직 라이트쇼가 진행된다. 두 행사 모두 22일까지다. 한강공원에는 앨범 제목 ‘아리랑’의 초성을 본떠 만든 ‘ㅇㄹㄹ’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된다. 정유정 기자



“BTS The City Arirang Seoul” turns the capital into a fan destination – light shows at Banpo Bridge and DDP, a listening lounge at Yeouido Hangang Park, media facades at Shinsegae, a listening party at CGV Yongsan, and pop-up stores selling merch co-developed with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RM’s museum visits have become a trail of their own: Leeum, the National Museum’s “Room of Contemplation,” MMCA (where he recorded bilingual audio guides), and SeMA (2019 Hockney visit). Gyeongbokgung – their 2020 Jimmy Fallon filming location – sits steps from the concert venue.



1집 DARK&WILD (2014)



2집 WINGS (2016)



3집 LOVE YOURSELF 轉 Tear (2018)



4집 MAP OF THE SOUL : 7 (2020)



5집 ARIRANG (2026)





▲ 구독하기



▲ 이벤트 참여하기

매일경제 창간 60주년

# 매일경제 구독하면

## 경품이 팡팡

럭셔리 해외여행도 가고  
황금열쇠도 받고

돈이 보이는 매경 뉴스레터  
보면서 재테크 고수 되고  
청소년 맞춤형 틈매일경제  
받아서 경제지식도 쌓을 수 있어





가장  
한국적인  
장소  
광화문

모든  
세계인이  
본다

BTS

방탄소년단(BTS)의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아리랑)’ 공연은 군 복무로 멈췄던 시간을 지나 완전체로 돌아온 첫 무대라는 점에서 단순한 컴백을 넘어 하나의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날 공연은 경복궁에서 광화문 월대를 거쳐 광장으로 이어지는 동선으로 구성된다. 빅히트 뮤직은 “‘아리랑’의 상징성을 고려해 한국을 대표하는 공간에서 첫 무대를 선보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기간 각자의 시간을 보냈던 멤버들이 다시 모인 지금, ‘이별과 귀환’을 담은 아리랑의 정서는 완전체 복귀와 맞닿는다. 광화문과 경복궁은 한국 전통과 역사, 민주주의 열망이 겹쳐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오프닝으로 설정된 ‘왕의 길’은 조선시대 왕과 백성이 소통하던 자리로, BTS가 완전체로 돌아와 글로벌 팬과 소통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런던의 애비로드가 비틀스로 인해 전 세계 팝 팬들의 성지가 된 것처럼,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도 BTS 컴백 무대를 기점으로 글로벌 K팝 팬들의 ‘순례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의 글로벌 AI 뉴스레터 ‘SHINING’ 특별판이 발행됐다. 지난 18일 발행된 특별판은 멤버들의 성과를 되짚고, RM과 정국의 컴백 준비 과정과 성장 스토리까지 세밀하게 분석했다. 오는 23일 발행 예정인 특별판 2호에서는 광화문 컴백 무대를 실시간 조명하고, 팬들의 생생한 경험까지 담아낼 계획이다.

뉴스레터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홈페이지(kstarletter.stibee.com)에서 이메일 입력만으로 구독 가능하다.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Gwanghwamun: Where BTS’s Reunion Meets Korean History

BTS’s comeback stage routes through Gyeongbokgung Palace to Gwanghwamun Square a space where royal authority, civic identity, and democratic movements have converged for centuries. The “King’s Road” opening sequence traces the path once used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throne and the people, now repurposed as the setting for BTS’s return to their global audience. Bighit Music said the location was chosen to match the cultural gravity of ARIRANG. The show is a free outdoor event streamed live via Netflix to over 190 countries rather than touring abroad first. BTS planted their comeback in central Seoul and let the world come to them. One music industry figure likened the potential impact to Abbey Road’s lasting association with the Beatles, suggesting Gwanghwamun’s Sejong-daero corridor could become a permanent landmark for global K-pop fans. Separately, Maeil Business Star Today’s global AI newsletter SHINING ran a two-part BTS comeback special covering solo achievements during military service, the “City Arirang Seoul” project, and on-the-ground fan coverage of the Gwanghwamun show.





## 유플러스 AI와 경찰청이 함께하면 범인의 목소리가 보입니다.

AI 기술로 수집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경찰청과 함께 추적·검거하는  
VOICE WANTED PROJECT에 동참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LG유플러스의 기술과 경찰청이 함께하겠습니다

**VOICE WANTED에 동참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통화 녹음 후 [www.counterscam112.go.kr](http://www.counterscam112.go.kr) 에 제보\*

iOS : 무료 AI 통화 앱 익시오(ixa-O)를 통해 통화 녹음

Android : 전화 앱의 녹음 기능 or 익시오(ixa-O)를 통해 통화 녹음

“방탄소년단(BTS) 컴백 월드 투어는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에라스 투어’로 세운 기록에 맞먹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블룸버그)

방탄소년단의 컴백 활동이 3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매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IBK투자증권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BTS 컴백의 직접적인 매출은 2조9000억원, 이로 인한 영업이익은 5306억원으로 추정됐다.

매출의 일등공신은 콘서트 티켓으로 약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BTS가 내년까지 총 35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에 달하는 월드투어를 펼치는 덕분이다.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굿즈(MD) 매출은 8360억원으로 예상되며 스폰서십 1790억원 등 다양한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IBK투자증권의 설명이다.

이번 컴백은 단일 아티스트 성과에 그치지 않고 K팝 산업 전반의 성장 경로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월드투어를 통해 인기를 직접적으로 매출화하는 동시에 다음 공연의 규모를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어 내고, 팝업스토어와 IP 라이선싱, 팬 플랫폼을 통해 매출과 수익을 늘리는 ‘BTS노믹스 2.0’ 단계에 다가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대은 기자

B  
T  
S  
노  
믹  
스

5

집 앨범 발매

4

년 만에 컴백

3

조 매출 기대

2

번 다시 못볼

1

위 그룹 무대

“BTSnomics” Reboots: Revenue Could Hit 3 Trillion Won

IBK Investment & Securities projects direct revenue of 2.9 trillion won from the comeback, led by concert tickets at 1.8 trillion won (82 shows, 6 million attendees, average 300,000 won per ticket), merchandise at 836 billion won, and sponsorships at 179 billion won. Bloomberg has said the tour could rival Taylor Swift’s Eras Tour in earnings. The comeback signals a shift to “BTSnomics 2.0”? diversified revenue through stadium tours, Netflix content, IP licensing, and fan platforms, moving beyond the hit-single model of the “Dynamite”/“Butter” era. MD and IP licensing revenue for the Big 4 agencies grew from 127.5 billion won (11.4% of total) in 2018 to 1.17 trillion won (22%) in 2025. IBK analyst Kim Yu-hyeok noted that BTS fandom reliably converts into broader K-pop consumption, accelerating new audience acquisition across the genre.



2022년 3월에 열린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서울 공연.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for Innovation, HANYANG CYBER UNIVERSITY

#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 & K-에듀 세계혁신대학 랭킹(WURI Ranking) 선정(2년 연속)

2024 문화/가치 부문, 2025 학생지원/참여 부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학사·석사·박사 학위취득  
배움의 품격, 한양대학교의 **한양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gs.hycu.ac.kr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위 기업 선정(총 19회)/세계혁신대학 랭킹(WURI Ranking) 선정(2년 연속)  
교육부 주관 사이버대학 기관평가 인증 '전 영역 인증'/한국사학진흥재단 주관 '재정건전대학 선정'/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20년 연속)  
하이스트브랜드 대상(20년 연속)/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11년 연속)/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기업대상(12년 연속)

